10.15686/fkl.2024..63.246 OPEN ACCESS

양공주 서사에 나타난 잔인한 낭만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 작품론

박홍매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타자의 시선과 수치심
3 ‘여학생-양공주’ 사이의 길항
4 혐오의 내면화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 개인 여성의 내면을 따라가는 여성 서사로서 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이 지닌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해방기 양공주 소설'이라고 알려진 이 작품은 '국제결혼'이냐 '양공주'냐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한 여성 개인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최정희가 1952년 당시 양부인들과 이웃하여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하였다고 밝힌 이 소설은 그들의 일상적 어려움을 내면에 초점을 맞춰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내면의 감정을 입각점으로 삼고 세 가지 측면에서 최정희가 파악한 양공주 문제에 재접근하고자 하였다.

주인공 이차래는 아버지와 약혼자 배곤을 비롯한 타자의 시선을 아프게 의식하며 수치심을 강요받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욕망은 도리어 욕망의 주체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수치심은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자살 등 문제와도 연결되며 양공주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차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 서사에서 주변 인물로 인텔리 여학생 한상매와 양공주 정순자가 등장하여 이차래의 내면에서 불화하는 두 가지 정체성을 더 돋보이게 비춰주고 있다. 특히 이차래의 최후를 함께 해준 사람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양공주 정순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마지막으로 이차래를 더욱 불행하게 만든 상황은 혼혈아의 어머니라는 사실이었다. 혼혈아 아들의 이질적 외모와 남편의 부재라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차래는 아이를 영아원으로 보내는 방법, 즉 해외입양을 보내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차래가 눈으로 뒤덮인 거리를 정처 없이 헤매는 신체적 증상은 불안을 극대화하여 보여주며 그녀의 죽음은 이미 서사 곳곳에 배치된 여러 단서를 통해 예고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가족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로 이 서사는 완결된다.

국문핵심어: 최정희, 끝없는 낭만, 양공주, 수치심, 혼혈아, 여성 서사

1 들어가며

양공주[1]는 한국전쟁과 함께 생겨난 특수한 말이자 현상이다. 한국전쟁 시기 미군 기지를 중심으로 주변에 클럽과 술집이 생겨났고 성매매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지촌이 형성되었다. 기지촌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전쟁기에는 주로 개인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졌고 국가 또한 초기에는 방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2] 민간에서도 성매매는 여성이 민족과 가족을 위해 행할 수밖에 없는 '쓰라린 선택' 정도로 여겼다. 그러나 1951년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전쟁의 불안이 점차 가라앉게 되자 양공주는 사회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주로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나라의 치욕'이라 손가락질 받는 등, 양공주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은 점차 더 심각해졌다. 양공주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여성을 비하하는 멸칭인데, 실제 맥락을 살펴보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점점 확장되어 서양 사람과 교제하는 여성, 미군과 가까이 지내는 여성까지 비난하는 혐오 발언으로 되어갔다. 예컨대 피엑스에서 근무하는 여성은 높은 급료로 경제적 안정과 혜택을 누리면서도 양공주로 오인되기도 하고 양갈보로 불리기도 하며 빈번하게 폭력에 노출되었다. 그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혼으로 미군 부대를 떠나게 되면 '더럽혀 지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곤 하였다.[3] 기지촌이 완성된 후와 달리 전쟁 중이나 전쟁 직후의 소설에서는 미군과의 연애 및 동거와 성매매의 경계는 흐려져 있다.[4] 최정희는 『끝없는 낭만』에서 이러한 경계를 소설화하여

---

1 양공주보다 더 심하게는 양색시, 양갈보, 매춘부로 불렸다. 어느 정도 치장을 하거나 고정 고객을 얻으면 유엔마담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2 2014년 기지촌 할머니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2월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 정부는 1950년대부터 외화벌이를 위해 미군 위안소를 조성하고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등 운영에 관여해왔다. "특히 정부는 1977년 이전까지 법적 근거 없이 단속 내지 성병에 걸린 미군이 성매매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여성을 격리수용해 의사의 진단 없이 페니실린 치료를 했다." 강윤혁 기자, 「대법 "기지촌 성매매, 국가가 운영하고 조장"」, 『서울신문』, 2022.9.29.

3 김은하,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여성문학연구, 2018, 330쪽.

4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

미군과 가까이하는 모든 여성을 혐오하는 사회적 기제를 보여준다.

1952년『희망』지에 연재된 최정희의『끝없는 낭만』[5]은 기지촌 형성 이전 한국전쟁 당시 양공주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이다.[6] 소설은 먼저 주인공인 소녀 이차래의 출생과 가족사를 소개하고 있지만, 주요 서사는 1952년 가을, 이차래가 열아홉 살 때 미군 캐리 죠오지를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는 이야기다. 이 소설은 1952년에 쓰였고 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 가장 생생하게 당시를 기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속 등장하는 단어로 표현하자면『끝없는 낭만』은 '국제결혼'이냐 '양공주'냐의 문제를 안고 고민하는 한 여성 개인의 비극을 그려내고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양공주'가 아님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한 여성을 형상화한 소설이다. 본 연구는 최정희가 나란히 놓을 수 없는 두 단어를 이렇게 가져와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며, 현재에 던지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양공주와 관련된 민족주의 서사에서는 민족과 여성을 동일시하여 여성을 민족으로 은유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권명아는 민족주의 서사에서 민족의 수난과 여성의 수난은 등가 관계를 이루며 훼손된 민족을 재현하기 위하여 민족의 알레고리로서 여성성이 동원된다는 점을 밝혀내고 있다.[7] 같은 맥락에서 김은하는 '양공주'를 그린 서사들이 대부분 '더럽혀졌다'거나 '오염되었다'고 비난하면서 여성의 성을 통제하고 남성성 구축을 기도하였다고 비판을 가하였다.[8] 정

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인문학연구』제5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23쪽.

5 이 연구에서는 1952년 연재본이 아니라 1958년 발간된 단행본을 텍스트로 삼았다. 최정희,『끝없는 낭만』, 동학사, 1958.

6 "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은 1952년『희망』지에 연재되었던『광활한 천지』를 개제하여 1958년 단행본으로 출간된 소설이다. 이 소설은 기지촌이 형성되기 이전인 1952년을 배경으로 양공주 문제를 다룬 매우 독특한 소설이다." 김복순,「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어문연구』제37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89쪽.

7 권명아,「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여성문학연구』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11쪽.

8 김은하,「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여성문학연구』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62쪽.

재림은 특히 양공주-누이가 등장하는 소설에 주목하면서 오상원의 「황선지대」(1960), 하근찬의 「왕릉과 주둔군」(1963) 등 탈식민 민족주의 계열 작품에서 양공주는 순결한 민족을 위협하는 오염물로 표상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더럽혀진 누이를 배제하는 방식을 통해 민족-남성의 강인함을 회복하고 구성하려는 욕망을 짚어냈다.[9] 이처럼 양공주는 민족·국가가 새롭게 자신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였던 타자이며 바깥으로 밀려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김복순의 진단에 의하면 기존의 양공주에 대한 문학적·문화적 표상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나선 생계형, 불순한 존재로서의 비난과 낙인의 상징,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요부 또는 남성을 유혹하는 팜므파탈, 그리고 군사주의와 제국주의의 희생자 등이었다. 하지만 『끝없는 낭만』은 '새로운 유형'의 양공주를 통하여 여성의 욕망을 문제 삼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공주의 유형을 생계형과 낭만적 사랑형으로 나누고 『끝없는 낭만』은 후자에 귀속시킨다.[10] 한국소설에서 재현된 양공주 인물형에서 송병수의 「쇼리 킴」(1957)에 등장하는 따링 누나와 오정희의 「중국인 거리」(1979)에서 등장하는 메기언니만 살펴봐도 『끝없는 낭만』의 이차래는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쇼리 킴」의 따링 누나는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하는 여성이며 주인공 쇼리킴은 열 살 남짓한 전쟁고아이다. 쇼리킴은 따링 누나와 함께 살면서 따링 누나에게 '양키 손님'을 알선해주는 일을 한다. 소설에서는 어린 화자의 시선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성매매로 달러를 모으는 장면을 묘사한다. 여기서 따링 누나는 '생계형'에 분류된다. 한편, 「중국인 거리」에서 양공주 메기언니는 직접 발화하지 않고 타인에 의해 호명된다. 어린 소녀 화자 '나'와 '나'의 친구 치옥은 항상 양공주 메기언니의 방에서 신기한 미제 물건들을 구경한다. '나중에 커서 양갈보가 되겠다'라는 어린 소녀의 발화를 통하여 '양공주'는 혐오의 대상인 동시에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였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 그러나 『끝없는 낭만』의 주인공 이차래는 기존의 희생자 혹은 타락자라는 양공주의 전형에서 벗어나는 인물이다. 따라서 자신을 '양공주' 범주에

9 정재림,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제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476쪽.

10 김복순,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172쪽.

속한다고 인정하기 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양공주 문제를 풀어내면서 이러한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재현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허윤은『끝없는 낭만』을 양공주가 아닌 "인텔리 여학생이 미군 장교와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만 결국에는 비극적 죽음이라는 결말에 이르는 소설"로 보고 있다.[11] 같은 맥락에서 오태영도 이차래를 양공주가 아닌 "낭만적 사랑을 꿈꾸는 여학생"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여성의 욕망은 어떻게 (불)가능한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 서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12]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 동의하면서 여성의 욕망이 어떤 방식으로 (불)가능하게 되는지 섬세하게 따라 읽고,『끝없는 낭만』에서 여성 서사가 만들어지는 구체적인 방식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고찰하기 위하여 감정 연구는 좋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특히 주인공 이차래가 주변 인물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감정의 변화를 수치심, 자기 분열, 불안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재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내면 읽기 혹은 감정의 선에 따라 읽기는 여성의 내면 활동, 그리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소모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여성 서사로서 의미가 있다.

2 타자의 시선과 수치심

최정희가 작가 후기에서 설명했듯이,『끝없는 낭만』은 본인이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에서 남보다 일 년 일찍 올라와 비어있는 서울 동네에서 양부인들과 이웃하여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소설이다. 최정희는 이에 덧붙여 "그들에게 어느 정도 정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에 쓰여진 소설"[13]이라고 밝힌다. 가까이에서 그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삶을 어렵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가장 문제적인 지점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11 허윤,「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전과 국민되기-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어문연구』제4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59쪽.

12 오태영,「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인문논총』제7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43쪽.

13 최정희,『끝없는 낭만』, 동학사, 1958. 320쪽.

『끝없는 낭만』에서 서사의 주요 갈등은 주인공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이차래는 무남독녀로서 할빈에서 태어나 열두 살에 해방을 맞이하여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황해도 사리원으로 돌아온다. 이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삼팔선을 넘어 서울에 정착하게 된다. 1952년 가을, 미군기지에서 빨래와 다림질로 생계를 유지하던 이차래는 미군 캐리 죠오지를 만나게 되고 캐리 죠오지의 따뜻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구애로 연애·결혼·출산의 과정을 겪게 된다.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의 관계에서 캐리 죠오지가 미군이라는 신분의 문제도 있지만, 일상에서 이차래가 죠오지에게 일방적으로 받고 있는 물질적인 혜택이라는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 캐리 죠오지는 김장을 실어다 주는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여 집을 마련해주고 아버지 일자리를 구해주는 등 여러모로 이차래와 그의 가족들을 보살펴 준다. 그리고 아버지가 아편중독에 걸린 사실을 알고는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고 이차래에게 책도 선물해주며 위로한다.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에서 이차래의 부모님은 딸이 '양갈보'로 오인될 것을 우려하며 미군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처음에는 꺼렸지만, 나중에는 딸과 미군의 연인관계를 묵인하고 나아가 부추기까지 한다. 허윤은 캐리 죠오지가 이차래에게 경제적으로 제공해주는 도움을 '증여'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의 관계는 증여와 감정의 교환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점을 짚어냈다. 그러나 이차래는 자신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명명하였으며 이는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것이다. 즉, 증여와 감정의 교환 관계를 '사랑이라는 환상으로 봉합'하려는 과정에서 균열이 일어났다고 서술한 바 있다.[14] 기실 이차래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드는 근원은 일방적인 물질적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공주'와 관련된 타자의 불편한 시선과 혐오 발언,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서 비롯된 내적 갈등과 자의식에 생긴 균열인 것이다.

'양공주'의 삶의 양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양공주에 대한 타자의 시선과 그에 대응하는 자기인식이다. 소설에서 양공주에 대한 당시 사회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은 한상매가 이차래에게 쓴 편지 내용이다. 우선 소설에서는 한

14 허윤, 앞의 글, 267쪽.

상매의 아버지가 사회부에 요직을 맡고 있고 한상매 자신도 사회문제에 유달리 관심이 많아 어른 같은 소리를 한다고 언급함으로써 공적인 담론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공신력을 부여하고 있다. 편지에서는 당시 신문 내용을 인용하면서 소위 양부인이라는 건 해방의 부산물로 "직업여성 통계란에 팔십「파-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양부인이 되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허영심에서 출발한다"고 부정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15] 이러한 대목은 당시 사회가 양공주를 타락자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통념을 확인할 수 있다.

> 『아버지 말씀을 믿어요?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셨어요. 돈 까닭에…… 살수가 없어서 미군하구 결혼했다고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지요? 절대로 돈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 살수가 없어서 미군하구 결혼했다면 양갈보지 뭐예요? 나는 양갈보가 아닙니다. 「캐리·죠오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겁니다.』
>
> (…)
>
> 『(…)차래씨는 양갈보가 아니라고 자신을 변명합니다만 양갈보들에게 이야길 시켜보더라도 역시 차래씨와 똑같은 말을 할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산다고-. 딸라가 탐나서, 호화로운 생활이 좋아서…… 말하자면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따위 짓을 한달 여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거나 혹자는 부모 동생을 멕여 살리기 위해서라고 말할겝니다.』[16]

이차래에게 결정적인 타자의 시선은 아버지와 배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전쟁터에서 전사하였다고 알고 있던 배곤이 살아서 돌아오자 가난 때문에 딸을 미군과 결혼시켰다고 말하고, 배곤은 이차래에게 양갈보가 아니라는 변명을 하지 말라며 이차래를 확실하게 양공주로 위치시키며 비난한다. 이처럼 이차래는 타자의 시선을 아프게 의식하며 '양공주'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하는 불편한

15 『끝없는 낭만』, 50쪽.
16 『끝없는 낭만』, 288쪽.

시선을 내면화하여 자신을 점검한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자신을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며 수치심을 강요받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사회 규범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에 벗어난 욕망은 도리어 욕망의 주체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주체가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주체가 규범적 존재의 각본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정동적 비용을 치른다는 뜻"이다.[17] 이차래의 섹슈얼리티가 온전하게 존중받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성한테 강요되는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다. 수치심은 '자아와 자아이상의 갈등'을 의미하며 국가와 공동체의 이상에 부합되지 않을 때 작동한다. 배상미는 당시 미군을 상대하는 성노동자들은 강력한 낙인에 시달려야 했는데, 이 낙인은 미군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유지와 남한 '남성'들의 가부장권의 유지를 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18] 여기서 민족과 국가를 대변할 수 있는 남성 인물에 의해 여성의 수치심이 어떤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한편, 수치심은 우울증, 불안장애, 중독, 섭식장애, 자살 등 문제와도 연결되는데, 이차래가 신경증에 걸려 캐리 죠오지가 지속적으로 주사를 놔주는 설정, 그리고 이차래에게서 나타나는 우울증과 불안증세도 이와 관련이 있겠다. 대부분 기지촌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음주와 중독성 약물에 노출되며, 자살 충동을 느끼거나 실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집단적이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양상으로 나타났다.[19] 여성에게 만연되는 우울은 문화적인 것으로 많은 부분은 여성에게 요구되는 차별과 억압에서 기인한다. 이차래가 처한 상황 역시 그녀가 사회적으로 양공주로 오인되는 상황에서 양공주의 사회적인 입지와 별개로 보기 어렵다.

양공주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경우, 양공주라는 현실을 수용하되 자책이나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경우, 양공주로서 자

17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235쪽.

18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81쪽.

19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 『역사문제연구』 40권, 역사문제연구소, 2018, 130쪽.

격지심과 죄책감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거나 파멸하는 경우 등[20] 그동안 양공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왔지만, '양공주'라는 범주 자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많이 주목하지 않았다. 『끝없는 낭만』의 주인공 이차래는 양공주라는 범주의 경계에 서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여학생-양공주 이분법'[21]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다. 이차래는 소설 전반에서 자신을 양공주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의심에 빠지며 시계추처럼 반복적으로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결국 소설 결말에서 자신이 양공주가 되었다고 판단하며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인간은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실현할 수 있다.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와의 만남에서 이차래는 전혀 금전적인 목적이나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미군과 가까이 지내면서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서 이차래를 양공주로 인식하게 만든다. 최정희의 다른 작품 「아기별」에서도 서양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나중에 교제하게 되는 '어머니'를 '양갈보 년', '서양사람과 붙었다'는 식으로 비하하는 발언들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어머니'는 '양갈보'라고 불리지만 성매매 여성은 아니다.

이차래는 작중인물들에 의해 양공주나 양갈보로 지칭되고 주변인물들은 그녀에게 부정적인 시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양공주의 허영을 문제라 지적하는 한상매의 편지, 엄마의 양공주에 대한 비하 발언들, 아버지가 가난 때문에 딸을 팔았다는 발언 등 주변인물들은 이차래한테 수치스러운 일을 목격하는 존재가 된다. "타자는 주체의 수치심을 목격하는 존재로서, 주체가 주체 자신을 향하도록 만든다." 이차래는 '타자'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타자'인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22] 실제로 자신이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여부를 막론하고 타자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기억하는지의 문제가 그녀의 자아인식에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리매김하는지는 그 앞에서 무력하게 될 뿐이다. 성과 사랑에 있어서 여성이 봉착하게 되는 문

20 강경화,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해방기와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6쪽.

21 허윤, 앞의 글, 268쪽.

22 사라 아메드, 앞의 책, 233쪽.

제를 결코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원인이 여기서 드러난다.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얼려서 놀구 싶잖어요. 거기 간것까지 후회돼요. 왜 내가 양갈보들 있는데로 간단 말이에요? 「오하라」씨는 왜 그까짓것들 하구 날 악수 시키는거예요? (…)』

『차래, 그건 너무 지나친 소리요. 그 사람들 하구 악수한게 뭐가 안된단 말이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들 중에도 생명을 내걸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오, 차래. 그런 생각일랑 버려요.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고 하다는 생각 말이오. 한국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면 그들도 현숙한 아내로서 단란하게 살았을 여자들이었을지 알아요?』 (272쪽)

이차래는 캐리 죠오지와 연인관계를 맺기 이전부터 인자 어머니를 "양갈보 에미 따위"라고 마음속으로 혐오하기도 하였지만, 캐리 죠오지와 결혼하고 함께 참석한 모임에서는 그들과 확실하게 선을 긋기 위하여 물리적으로도 거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차래의 이러한 행동과 입장에 제지를 가하고 작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인물은 캐리 죠오지이다. "누구는 낮고 누구는 높고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더럽다"는 구분 자체를 없애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호소하는 대목에서 양공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인식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양공주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집요한 질문, 즉 국제결혼이냐 양공주냐의 질문이 이차래라는 여성 개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사회적으로 양공주에 대한 혐오, 즉 양공주는 '낮고', '더럽다'라는 전제 때문이다.

캐리 죠오지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의 신분으로 '양공주'에 대하여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는 인물이다. 캐리 죠오지라는 미군 인물은 소설이 마무리될 때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며 이차래의 죽음에는 관련이 없는 듯 처리된다.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따지고 보면 결국 혼자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정상가족'을 이루려는 이차래의 환상을 지켜주지 못하였다. 1952년까지만 해도 '아시아 출신 이민 금지' 조항 때문에 이민법이 인정한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한, 군인은 외국인 아내와 자녀를 고국에 데려갈 수 없다는 현

실적인 어려움도 분명하였다.[23] 그러나 캐리 죠오지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차래와의 관계에서 위안을 얻은 것은 사실이며, 이성애 관계에서 이뤄진 일방적인 물질적 혜택은 이차래와의 사랑이 평등한 관계가 아닌 거래 관계라는 의심을 떨쳐내기 힘들게 만든다. 이차래의 내면을 따라가고 있는 이 서사에서 캐리 죠오지의 내면은 독자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이차래가 믿고 있는 혹은 믿고 싶은 순정적인 사랑인지 아니면 귀국하면 청산될 짧지 않은 외국 생활의 위로가 되어 주는 애인 정도였는지는 여백으로 남아 있다.

3 '여학생-양공주' 사이의 길항

주인공 이차래를 중심으로 서술되는 이 서사에서 이차래의 '여학생과 양공주'라는 정체성을 더 돋보이게 비춰주는 두 명의 여성 인물이 등장한다는 지점은 흥미롭다. 이차래의 단짝 친구인 한상매는 기본적으로 양공주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이차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이차래와 꾸준히 편지를 주고받는 단짝 친구로서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이다.[24] 한상매는 정치과 학생이며 저명한 정치가로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여학생으로 정치에 대한 열망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피아노 연주하고 그림 그리고 항상 아파하는 이차래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인 야망과 포부를 지닌 여성으로 이차래에게 조언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① 『행, 불행도 자기 손으로 좌우 할 수 있다고 본다. (…) 무서운 불행이 더라도 운명이거니 하고 받아 드리는 건 싫어. 그렇게 약하게 살고 싶잖어. 닥아오는 운명을 휘여잡아 쥐고 채찍질 해 가며 살구 싶어.』 (114쪽)

② 『인제 아무것도 생각할것 없어. 더 좋고 나은 방법을 선택하는데 머

23 아리사 H.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뿌리의집, 2019, 21쪽.

24 두 명의 여성 인물이 단짝 친구의 관계를 맺고 서로 우정을 나누는 설정은 최정희의 다른 작품 『녹색의 문』에서도 확인된다.

리를 쓰잔 말이야. 다시 말함 건설적인 면으로 머리를 돌리잔 말이다. 밤낮 걱정하고 고민하고 해야 소용있니 어떻게 하면 지금 보다 나은 위치에 놓여질가 하는걸 연구해야 된다.』 (218쪽)

한상매는 이차래에게 양공주인지 아닌지 고민할 것 없고 캐리 죠오지와의 연인 관계를 이미 선택했으면 지금보다 더 나은 위치를 찾는 방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쾌한 대답을 제공해준다. 이처럼 한상매는 끊임없이 자기 의심에 빠지는 이차래와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대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향한 공동의 목표를 지향한다. 한상매는 명확한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행, 불행도 자기 손으로 좌우할 수 있다고 믿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차래는 이러한 차이를 한상매가 자라난 환경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차래는 한상매가 타고난 성격이나 개인의 노력보다는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다른 사람을 타이르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한상매를 부러워한다. 그와 동시에 처참한 자신의 환경을 비관하며 캐리 죠오지와 사랑하게 된 것도 전부 환경이 가져다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아무렇게나 사는 수밖에, 나같은 건 아무렇게나 마구 살아두 괜찮아"라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개인보다 환경이라는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부분은 '소용돌이'와 같은 인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에 대한 최정희의 안타까운 시선과 상동적이다.[25] 『끝없는 낭만』에서도 '환경 탓'이 누차 언급되고 있는데, 처음 캐리 죠오지를 만났을 때, 그와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비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처참한 환경, 생활'[26]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든가, 직장을 잃은 아버지가 다시 아편중독에 빠지는 굴레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지겨운 과정을 지켜보는 등 일이다. 이차래 자신도 본인은 '양공주와 다르다'고 여기며 '국제결혼'을 감행하지만 결국 당시 사회의 여느 양공주와 같은 처지로 선택의 여지가

25 최정희의 다른 작품 『뗴스마스크의 비극』(1956)에서도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 허형재는 조각과 미술을 전공하는 예술가 청년인데, 미술전시에 가서 그 화백의 재능이나 작품성을 감상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그를 만들어준 환경을 부러워한다.

26 『끝없는 낭만』, 59쪽.

없이 혼혈아 아이를 해외로 입양을 보내게 된다.

이차래는 자신의 '욕망'에 다가가면 갈수록 외부 세계와 불화하게 된다. 호네트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사회적으로 규정된 '나'와 다른 부분은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주격 나'는 타자의 시선에 의하여 자신의 상을 인지하고 '목적격 나'에 대한 심상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타인의 관점을 내면화하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27] 아이를 영아원에 맡기고 혼자가 된 이차래는 양공주 정순자를 만나 자신의 양공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정순자는 이차래의 '분신' 혹은 '짝패'(double)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28] 정순자는 소설에서 마지막 장면에 잠깐 등장하여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차래에게 완전한 자살로 비극적이지만 저항적인 결말을 부여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 소설에서는 자살과 타살 사이에서 타살에 가까운 사고사라는 다소 모호한 결말로 처리되고 있다. 자살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독법에서는 여성이 관습을 버렸다는 이유로 자살을 선택한 것을 전후 남성성의 회복 과정에서 타락한 여성에 대한 단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29] 이렇게 되면 이차래의 죽음은 사회 규범에 벗어난 욕망을 가진 대가로 치러진 처벌인 셈이다. 그러나 쓸쓸하게 혼자 생을 마감하는 결말이 아니라 정순자 집에서 양주를 마시다가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결말은 자매애를 연상시키며, 주인공이 굳이 죽어야 한다면 이것이 덜 잔인한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차래는 아이를 영아원에 보냄으로써 전통적인 가족관계와의 철저한 단절

---

27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옮긴이의 말」, 『인정투쟁』, 동녘, 1996, 13쪽.

28 "짝패(double)는 표현 그대로 두 명이 서로 짝이 되는 패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서, 기본적으로는 대립 구도를 갖는 인물쌍이면서도 어느 한쪽은 다른 한쪽이 없을 경우 나머지 한쪽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특히 둘 사이에서 누가 이기냐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존재함으로써 상보적으로 전체성을 드러내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안한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짝패(double)'는 일종의 분신과도 같은 중개자로서 욕망의 유발자인 동시에 경쟁자로 여겨지게 된다." 오자은, 「무관심한 지성과 맹목적 정열 사이-김승옥의 『60년대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4집, 우리어문학회, 2022, 110쪽.

29 오태영, 앞의 글, 354쪽.

을 꾀할 수 있었다. 남편 캐리가 자국으로 귀환하고, 아이를 빌미로 돈을 탐하던 부모와도 아이를 떠나보냄으로써 더 이상 가족부양을 비롯한 책임을 내려놓게 된다. 이처럼 '낭만적 사랑'이나 '모성 이데올로기'는 서사에서 완전히 물러나 배격되고, 이차래는 정순자와의 일시적인 새로운 관계 형성을 이룬다. 둘은 '양공주'라 손가락질 받으며 수치심을 강요받았던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게 되는데, 국제결혼을 한 '나'와 양공주 정순자 사이의 경계와 구분선을 명확히 느끼면서도 이를 넘어서는 공감과 연대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차래의 최후를 함께 해준 사람은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사람이 아니라 양공주 정순자라는 사실은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끝없는 낭만』은 양공주 소설 중에서도 한 여성 개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보여준 소설이다. 이차래와 한상매의 관계, 이차래와 양공주 정순자의 관계에서 두 여성인물은 이차래의 내면에서 갈등하는 두 가지 상을 보여준다. 한상매는 엘리트 여학생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정순자는 미군과 가까이하는 양공주 정체성을 대표한다. 주인공 옆의 두 주변인물을 통하여 이차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결국 이차래를 죽게 만든 이유 중 하나는 내면의 인텔리 여학생 정체성과 양공주 정체성 사이의 큰 괴리와 불화라고 할 수 있다. 단짝 친구이자 같은 여학생으로 많은 부분을 공유하는 한상매는 양공주와 대척점에 놓여 있으며, 한상매와의 관계를 통해 이차래의 내면에서 양공주에 대한 혐오는 더 가중되는 반면 한상매는 더 돋보이게 훌륭해진다. 이처럼 여학생과 양공주를 대비시키는 이차래의 내면에서 그녀는 자신을 무언가를 상실한 존재로 상상한다. 그리고 그 무엇은 물론 '성적'인 것이며, 이차래는 자신이 '타락'하였다고 느낀다.

자매 관계는 서로 비슷한 점을 많이 공유하기 때문에 공감과 이해를 주고받기 쉬우면서도 쉽게 비교되거나 동일시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분리를 갈망하기도 한다. 이차래와 정순자는 공통적으로 혼혈아 아이를 낳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아이를 영아원으로 보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미군 남성에게 의지하여 자신의 가족 생계를 부담해왔던 사실도 있다. 이차래는 정순자를 만남으로 자신의 양공주 정체성을 정확히 확인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순자와의 동일시를 강력하게 거부하기도 한다. 예컨대 어떠한 이유로도 '양공주'가 된 사실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식의 발언으로 정순자를 부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매애는 여성

간의 연대라기보다는 공유하는 경험을 통하여 얻어지는 이해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연결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도 이차래와 정순자의 만남에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지 않으며, 관계의 결말을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튿날 아침 시체로 발견된다는 짧은 서술로 처리한다.

이차래는 정순자를 자신과 다른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결국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함께 최후를 맞이한다. 이차래와 정순자는 오랫동안 우정을 이어오면서 감정을 키워온 사이도 아니고 혈연이나 결혼의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도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에서 얻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감정을 성공적인 소통으로 나누어 가진다. 이는 자신의 특정 경험이나 신념을 확인받고 그럼으로써 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차래는 정순자를 만나면서 양공주 정체성을 확인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었던 '양공주' 정체성을 공유하며 혼자가 아니게 된다. 남편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듯이 자국으로 귀국하자, 아들은 영아원에 보내고 자신은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복귀함으로써 '가족으로의 귀환'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모습으로 서사를 끝맺고 있는 것이다.

4 혐오의 내면화

『끝없는 낭만』에서 이차래의 처지를 더욱 불행하게 가중시킨 원인은 임신·출산의 경험이다. 1950년대 혼혈아를 소재로 삼은 여타 작품들도 있으나 탄생과정과 추후의 향방은 드러나지 않는다. 태어나기도 전에 병원에서 지워지거나 남성들의 폭력 속에서 사라지는 서사[30]와 달리 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에서는 혼혈아 토니의 탄생과정 및 그 후의 향방까지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차래는 축복 속에서 미군 장교 캐리 죠오지와 국제결혼을 하였고 캐리 죠오지와 닮은 혼혈아 토니를 사랑스럽게 키우고 있었다. 그러나 캐리 죠오지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전

30 예컨대 오상원의 「황선지대」, 김광주의 「혼혈아」 등 작품이 있다. (강진구, 「국제결혼과 혼혈의 탄생-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70쪽.)

장에서 희생되었다고 여겼던 약혼자 배곤과 재회하게 되면서 자랑스럽던 토니의 외모가 '징그럽게' 여겨진다.

① "이리 주세요, 토니는 어머니 새끼가 아네요. 미국놈의 새끼예요. 얼리지도 않게 토니는 다 뭐예요?"

(…)

"어머니는 창복이니 순이니 하는 이름을 가진 아이를 안아야 얼려요. 이렇게 백색 피부에 옴팍 들어간 눈과 우뚝히 높은 코를 가진 서양 아이는 얼리지도 않어요. 토니가 다 뭐에요?"(307면)

② 당신 조상의 어느 한분과도 같지 않고 당신과도 같지 않고 조국 땅 안에 사는 우리 민족의 어느 한 사람과도 같지 않은-백색 피부와 옴팍 들어간 눈과 우뚝히 높은 코를 가진 아이를 차래씨가 안고 앉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낳았고 당신이 안고 앉았으나 당신하고는 머언거리에 놓여 있는 아이입니다. 백색 피부 밑을 흐르는 그 아이의 피는 저 멀리 바다 건너 미국 민족들의 피와 같을 뿐입니다. (299면)

앞서 서술했듯이 배곤은 이차래를 양공주로 위치시키며 토니를 '징그럽다고' 한다. 위의 인용문②는 배곤의 편지내용인데 특히나 아이가 이질적인 외모를 가진 혼혈아라는 점을 문제 삼는다. 이 편지를 읽은 이차래는 토니를 젖먹이다가 '토니'라는 이름이 낯설고 아이가 편지의 내용처럼 멀리 느끼게 된다. 이차래는 어머니가 토니를 돌봐줄 때 '창복이니 순이니' 하는 한국 이름이 아닌 '토니'라는 이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백색 피부에 옴팍 들어간 눈과 우뚝히 높은 코를 가진' 토니를 보면서 견디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차래는 토니의 외모에 대하여 한상매가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털과 검은 눈동자가 매력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 만족하였으나 배곤의 편지를 읽은 후에는 토니를 '방바닥에 동댕이치듯 내려 놓고'는 토니의 외모가 '무섭고 징그러웠'다고 한다. 배곤의 비난에 동조하면서 이차래는 '소리를 마구 고함지르며 벌떡 일어 서'서 방안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집에서 뛰쳐나와 눈 속을 헤맨다.

나는 밖으로 뛰쳐 나갔읍니다. 푹푹 쏟아지는 눈이 손짓이라도 해서 부르는 것처럼 마구 뛰쳐 나갔읍니다.

천지의 한계를 구별할 수 없는 탓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뛰쳐 나간채로 한 달음에 달려서 대문 밖에 나갔고 큰 행길에 나갔읍니다.

어디로 어떻게 싸 다녔던지 그것도 알아낼 수 없었읍니다. 나는 그렇게 눈 속을 헤매다가 상매라도만나야 하겠다는 생각이 무뚝 들었읍니다.[31]

위 인용문에서 서술된 이차래의 모습은 정서적인 불안을 극대화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외모, 이름, 피로 설명되는 아이의 존재는 한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사회적으로 혼혈아는 '매춘부의 자식'으로 낙인이 찍혔다. 부계 혈통으로 이루어진 한국법에서 한국인 아버지가 없는 혼혈아는 무국적자이며 어머니의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척을 당하였다.[32] 전후 혼혈아에 대한 차별은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전쟁 이후 바로 해외입양이 시작된 것은 아니며 전쟁 직후에는 한국 국내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나 1950년대 아동 수용 시설은 모든 아동을 수용하기에 수적으로 부족하였고 재정지원 또한 부족하여 열악한 환경이었다. 1958년 국공립 시설은 전체 수용 정원의 7퍼센트에 불과하였고 대부분은 사설이었으며 해외원조를 받았다.[33] 이후 이승만 정부는 국가재건을 위하여 단일민족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면서 외적으로 표시되는 혼혈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해외입양은 1950년대에 이루어진 혼혈아에 대한 유일한 정책이었으며 미국 민간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부 산하 기관인 양호회 외 모두 민간단체였다. 1956년부터 양호회와 민간단체를 통해 입양되는 아동 수가 급증했으나, 한국 정부는 여전히 통일된 해외입양의 조건, 절차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34] 한국 정부는 혼혈아를 최대한 감

31 『끝없는 낭만』, 303쪽.

32 아리사 H. 오, 앞의 책, 24쪽.

33 김아람, 앞의 글, 106쪽.

34 민병웅, 「한미 해외입양체제와 혼혈인의 몸, 그리고 인종 과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추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지속적으로 해외입양의 비중을 늘리고 다수를 입양 보내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사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입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후속 문제가 발생하여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35] 이러한 혼혈아의 해외입양 사업은 순수한 혈통의 민족국가 만들기의 일환이었으며, 당시 현모양처 담론에서의 모성 개념 역시 순혈주의에 기반한 모성을 의미했었다.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모성의 자격조차 박탈당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토니를 '성남영아원'으로 보내는 것이 이차래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이의 이질적인 외모와 남편의 부재라는 문제를 해결해주기 때문이다. 『끝없는 낭만』에서 주요 갈등은 주인공 이차래와 캐리 죠오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는데 캐리 죠오지의 떠남과 동시에 혼혈아 아들의 문제로 이동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배곤과의 재회가 이루어졌을 때 연인관계를 회복하여 이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었는데 혼혈아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이차래는 눈 속을 헤매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처럼 '양갈보'라는 단어에 매몰되며 환각에 빠지는 경험을 한다. 내딛는 걸음마다 "발 앞에 상매 입에서 쏟아져 나올 '양갈보'가 줄을 지어 늘어 서"[36]고 여기에 배곤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딸라가 탐나서?', '호화로운 생활이 좋아서?'라며 '악 쓰는' 소리가 들린다. 이차래는 이 꾸짖는 소리에 압도당하며 곧 발걸음을 옮겨 아들을 데리고 영아원으로 향한다.

그때 이차래가 성남영아원을 찾아간 것은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였다. 그녀가 전에 영아원을 찾아가게 된 것은 민족이나 국가를 대변하는 남성 인물인 배곤과 아버지 때문이었다. 첫 번째는 곤이 다녀간 이틀째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가 캐리 죠오지에게서 보내온 물건과 달러를 시장에 가서 팔아 어머니와 대판 싸운

35 혼혈인이 한국의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출발점은 한국인과 다른 인종이라는 데에 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후 혼혈아가 많았을 것이지만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한국 민족의 핏속에 자취를 감추었"고 백인은 우세한 민족으로 "백인 혼혈아도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았"으나 "흑인의 피는 천지개벽의 변천이 있더라도 한국 사람의 핏속에 소화될 리가 없다"는 인식에서 알 수 있듯이 황색 인종 아시아계 혼혈인과 다르게 인식되었다. (장경학, 「특집: 잊어서는 안 될 혼혈아문제-혼혈아의 의적 견해」, 『여성계』 4-12, 1955, 98~99쪽.)

36 『끝없는 낭만』, 305쪽.

날이다.[37] 이차래는 자신이 죽어 버려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차례 했으며 그러기 위하여 토니를 맡길 곳을 찾아 두었다. 그곳이 바로 혼혈아에게 미국인 양부모를 찾아주는 성남영아원이었다. 이차래는 배곤의 혐오 발언을 내면화하면서 아들을 영아원에 '버리고' 우연히 양공주 정순자를 만나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과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5 나가며

낭만적 사랑에 기초한 결혼을 신성시하며 양공주로 낙인 찍히는 일을 두려워하는 사회 인식은 오랜 시간 유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정희가 양공주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접근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없는 낭만』이 여성 서사로서 유의미한 이유는 한 여성 개인의 내면에 집중하여 심각한 감정적 소모를 경험하는 모습을 소설화하였다는 지점에 있다. 정체 모르는 약을 지속하여 투여하고 정처 없이 걸어다니는 등 작품 곳곳에서 여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의 여러 발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마지막의 죽음은 전혀 갑작스럽지 않다. 기실 '나는 양공주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시작부터 '양공주 혐오 프레임'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양공주와 다르다'라는 낙관이나 환상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양공주 문제는 특수한 시기의 특수한 문제이자 당시의 보편적인 사회문제였다. 소설 속 '직업여성의 팔할은 양갈보'라는 표현은 당시 소위 '양공주'라 불리는 여성들이 외화벌이로 동원되었던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끝없는 낭만』은 1952년에 쓰였고 또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기지촌 형성 이전의 '양공주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양공주 문제는 주인공 이차래의 아들 토니처럼 혼혈아 문제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에서 후속적으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도 하였다. 『끝없는 낭만』은 '양공주-여학생'의 이분법이 불가능한 경계에 서 있는 존재를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특수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양공주 범주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전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

37 『끝없는 낭만』, 308쪽.

『끝없는 낭만』에서 주인공 이차래는 자신이 '양공주'가 아니라고 확신하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 이차래는 미군과 연애·사랑을 통하여 '국제결혼'을 선택한 여학생이지만, 주변 인물들 나아가 사회에 의해 끊임없이 '양공주'로 의심받고 수치심을 강요받았다. 따라서 사회 담론 속에서 여성의 선택을 자발적이라고 재단하고 단죄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이 양공주로 오인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대항하던 주인공 이차래는 결국 양공주인 정순자를 만나 자신의 양공주 정체성을 확인하고 죽음의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특히 주인공 이차래와 양공주 정순자, 그리고 이차래와 한상매는 서로 감정과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을 보여주며 일종의 짝패 관계를 이룬다. 서로 질투하거나 경쟁하는 대결구도를 이루어 승부를 보거나 동일시하는 방식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성이며 대화를 통하여 서로 소통하는 과정이다. 이차래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가까이에 있는 혈연이나 결혼으로 맺어진 가족관계가 아니라 전혀 낯선 타자인 것이다. 이차래와 정순자가 처음 만나는 장소는 영아원이며 혼혈아인 아들을 떠나보냈다는 점에서 또한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혼혈아'는 전쟁에 따른 결과로 정부에서는 '해외입양'을 주요 사회복지정책으로 내놓았다. 이는 이차래와 토니처럼 사회적 약자의 삶이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한국 소설에서 대표적인 양공주 소설과 차별되는 최정희의『끝없는 낭만』은 여성 주인공 이차래의 '국제결혼'이냐 '양공주'냐의 집요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오히려 이 질문의 허위성을 짚어내기 위하여 제기된 듯하다. 한 사회에서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특정한 고민과 질문이 여성을 얼마나 제한하고 배제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공주'라는 기호에 들러붙은 혐오의 감정과 그 속에 숨겨 있는 배제의 논리를 파악하고 문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동 기제는 낯설지 않으며 양공주 서사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여러 문제에서 그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정희가『끝없는 낭만』에서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며 현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최정희, 『끝없는 낭만』, 동학사, 1958.

단행본

김복순, 『"나는 여자다"-방법으로서의 젠더』, 소명출판, 2012, 172쪽.

사라 아메드, 시우 역, 『감정의 문화정치』, 오월의봄, 2023, 223-263쪽.

아리사 H. 오, 이은진 역,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뿌리의집, 2019, 21쪽.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동녘, 1996, 13쪽.

논문

강경화, 「양공주의 자기인식 양상과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해방기와 1950년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7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7, 5-38쪽.

강선미, 「자매애에 대하여」, 『여성과 사회』 제11호, 한국여성연구소, 2000, 64-79쪽.

강진구, 「국제결혼과 혼혈의 탄생-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제45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11, 149-177쪽.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 민족국가 만들기와 여성성의 동원」, 『여성문학연구』 제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105-134쪽.

김복순, 「아프레 걸의 계보와 반공주의 서사의 자기구성 방식-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37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285-308쪽.

김아람, 「1950년대 한국 사회의 혼혈인 인식과 해외 입양」, 『고아, 족보 없는 자』, 책과함께, 2015, 79-125쪽.

김은경, 「미군 '위안부'의 약물중독과 우울, 그리고 자살」, 『역사문제연구』 40권, 역사문제연구소, 2018, 129-166쪽.

김은하, 「탈식민화의 신성한 사명과 '양공주'의 섹슈얼리티」, 『여성문학연구』 제10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158-179쪽.
_____, 「젠더화된 전쟁과 여성의 흔적 찾기-점령지의 성적 경제와 여성 생존자의 기억 서사」, 『여성문학연구』 제43호, 여성문학연구, 2018, 313-341쪽.
민병웅, 「한미 해외입양체제와 혼혈인의 몸, 그리고 인종 과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1-31쪽.
배상미,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넘어서려는 연합적 정치들: 해방기 최정희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49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64-90쪽.
오자은, 「무관심한 지성과 맹목적 정열 사이-김승옥의 『60년대식』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74집, 우리어문학회, 2022, 89-125쪽.
오태영, 「전후 남성성 회복과 여성 욕망의 금기-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75권 제1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8, 327-360쪽.
정재림, 「1950-60년대 소설의 '양공주-누이' 표상과 오염의 상상력」, 『비평문학』 제46호, 한국비평문학회, 2012, 456-478쪽.
차미령, 「여성 서사 속 기지(촌) 성매매 여성의 기억과 재현-강신재·박완서·강석경 소설과 김정자 증언록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8호,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7-43쪽.
허윤, 「1950년대 양공주 표상의 변전과 국민되기-최정희의 『끝없는 낭만』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41권 제1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3, 257-283쪽.

Abstract

The Cruel Romance Manifested in the Narrative of the Western Princess
A Study on *Endless Romance* by Choi Jung-hee

PIAO HONGMEI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Choi Jeong-hee's Endless Romance as a nar-

rative following the inner life of an individual woman. Known as a “post-liberation Western Princess novel,” the work portrays the tragic life of a woman caught between the dilemmas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e label of “Western Princess.” Drawing from Choi Jeong-hee’s experiences living among Western Princesses in 1952, the novel sheds light on their daily struggles, focusing on their internal lives. This study reexamines the “Western Princess” issue as depicted by Choi Jeong-hee, exploring three key aspects through the lens of the protagonist’s emotional interiority.

The protagonist, Lee Chae-rae, suffers from the imposed shame resulting from the gaze of others, including her father and her former fiancé, Bae Gon. Her nonconformity to societal norms and her deviant desires ultimately generate shame within herself. The shame is closely linked to various mental health issues such as depression, anxiety disorders, addiction, and suicide, demonstrating its entanglement with the struggles of Western Princesses.

The narrative is further enriched by the characters surrounding Lee Chae-rae: Han Sang-mae, an intellectual female student, and Jeong Soon-ja, a “Western Princess,” who reflect Lee Chae-rae’s conflicting identities. Significantly, it is Jeong Soon-ja, rather than a family member or spouse, who accompanies Lee Chae-rae during her final moments, offering a profound implication.

Lastly, what deepens Lee Chae-rae’s misery is the fact that she is the mother of a mixed-race child. Struggling with her son’s distinct appearance and the absence of her husband, she is compelled to send her child to an orphanage, opting for overseas adoption as a solution. Her aimless wandering through snow-covered streets symbolizes her heightened anxiety, and her death is foreshadowed throughout the narrative. Ultimately, the story concludes not with a “return” to family but with a complete “escape” from it.

Key words: Choi Jung-hee, *Endless Romance*, Western Princess, Shame, Mixed-race Child, Female Narrative

논문투고 / 2024.11.22.
심사완료 / 2024.12.03.
게재확정 / 2024.12.08.